2016 새 설계

강 남 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매출 3조5천억 목표 농축산물 판촉 강화"

농기계 은행·일손돕기 사업 확대
전남쌀 수도권 판매·수출상담회 개최
농업 미래 위한 청년 후계자 육성

"생산은 물론 판매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농협 본연의 판매사업을 강화해 농축산물 판매 3조5000억원을 달성하고 농업생산비 절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 육성하는 등 돈을 버는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강남경(55)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1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처한 전남농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판매 촉진과 농업 후계자 육성이라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해 농사일을 임대해 생산에서 판매, 대금 입금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 대행사업과 대를 이어 농사에 뛰어들어 젊은이를 위한 후계 육성이 바로 그것이다.

강 본부장은 "올해는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며 "특히 농촌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 농업부문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본부장은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을 주시하면서 당장의 성과가 아닌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며 고객과 농업인을 위한 전남농협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 기계로 대체 ▲맞춤형 농작업 대행사업 ▲이주여성 1대1 맞춤형 영농교육·기초농업교육 ▲실질적인 후계인력 육성계획수립 등을 통해 농촌 고령화 문제와 인력육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구상이다.

강 본부장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는 "전남농협 자체적으로 파프리카, 배, 딸기 등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일본·중국 등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신규 수출품목 발굴과 연합수출조직 육성을 통해 수출 확대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무엇보다 쌀 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 전남쌀 판매 늘리기에도 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농협은 아침밥 먹기 운동, 수도권 통합판촉행사 등 전남쌀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영세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는 벼 직파재배를 주목하고 지난해부터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농법은 외부기관 컨설팅 결과 20~25% 수준의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상부상조'를 통한 협동조합의 진정한 가치 실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운동을 통해 홀몸 노인이나 조손가정,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영농철에는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농촌 일손돕기를 확대하고 기금 모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주 출신인 강 본부장은 전남고와 전남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중앙회 구례교육원 교수, 완도군지부장, 전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부본부장, 구례교육원 원장, 상호금융수산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78.45 (-0.42)	금리 (국고채 3년) 1.65% (0.00)
⬆ 코스닥 683.63 (+5.20)	⬇ 환율 (USD) 1210.90원 (-2.50)

"설 선물 영호남 화합과일로 하세요" 18일 광주시 서구 이마트 상무점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영호남 대표산물인 영주사과와 나주 배로 구성한 혼합상품 선물세트 '홍동백서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광주·전남 무역수지 135억달러 흑자

지난해 수출·수입 감소…수입 더 큰 폭 줄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135억5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5년 광주·전남 수출입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대비 95억6000만 달러 감소한 458억 달러, 수입은 146억9000만 달러 감소한 322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135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증가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 대비 6.0% 감소한 152억9100만 달러, 수입은 7.4% 증가한 55억5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3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가전제품·기계류·타이어·철강제품 등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화공품·철강재 등이 증가했고 고무·기계류·가전제품 등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22.0% 감소한 305억1400만 달러, 수입은 36.1% 감소한 267억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1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본인 명의 은행권 전 계좌 한눈에 조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연내 도입…방문 없이 잔고 이전·해지

금융위원회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는 온라인에서 전 은행권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잔고이전은 물론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도입한 계좌이동제(Pay Info)가 자동납부 정보를 자동전환해 주거래 은행 변경을 쉽게 하도록 돕는 제도라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장기미사용·휴면 계좌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평균적으로 가진 은행 계좌 수는 1인당 5.4개로 평균 2개 내외인 주요국 대비 2배 이상으로 많은 상황이다.

계좌 유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계좌 유지 비용이 없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해약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전체 은행 계좌가 순증만 지속하다 보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사용 계좌가 전체 수시입출금식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49%)하고 있다. 장기미사용 계좌에 예치된 자금 규모도 총 5조5000억원이다. 성인 1명 기준으로 보면 평균 15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미사용 계좌는 금융사기용 대포통장으로도 쓰일 위험성이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유지·관리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현 제도에서 장기미사용 계좌를 해약하는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영업점에서 장기미사용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은행들이 전화통화만으로 계좌 해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좌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모르면 해당 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쉽게 해지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잔고는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 방문 없이 해지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우수제품 홈쇼핑 판매 기회"

중기중앙회, 광주전남 참가업체 모집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김형락 본부장)는 지역 우수제품 판매지원을 위해 홈쇼핑 방송 판매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17일까지다.광주시에서 7개사, 전남도에서 9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홈&쇼핑에서 지급한 입점 수수료 22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판매에 따른 판매직접비(8%)를 실비로 부담한다. 방송 판매는 4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홈쇼핑 방송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계획에서 정한 서식을 다운 받아 제안서, 상품정보, 상품사진,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 또는 이메일(jhh52@kbiz.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제조업 올 경영 화두는 '긴축'

경총 경제전망…기업 50% "장기불황 심각"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고용과 투자에 대해 축소하는 등 긴축경영에 들어갈 뜻을 밝혀 지역경제가 여러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영자총연합회는 최근 회원기업 66개사(제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2016년 경영자 경제전망 조사'결과, 올해 경영계획의 방향성을 '긴축경영'으로 잡고 있는 기업이 절반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경영계획 기조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0%가 긴축경영할 뜻을 밝혔고, 36.4%가 현상유지, 확대경영을 하겠다고 응답한 곳은 13.6%에 불과했다.

또 응답 기업의 63.6%가 현재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하면서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 경기저검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80.3%에 달했고, 경기저점을 통과한 후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답은 7.7%에 그쳤다.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 응답자들의 50%는 '상당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고, 2018년 이후 회복이 24.2%, 2017년 회복이 19.7%, 2016년 하반기 6.1%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